

평동사업장 건설 계기 세계전지산업 메카 육성

차세대 전지산업의 메카 건설

21세기의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변해 가는 대전환기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리튬전지 산업이다.

에니셀(대표 임영우 www.anycell.co.kr)은 지난 1999년 창업 이래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

수대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거나 실패했던 차세대 전지산업의 핵심사업 분야인 리튬전지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양산하고 지난 2년간의 도전과 열정,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전지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할 차세대 전지산업의 메카를 건설하고자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임영우 사장은 “21세기 인류의 최대 과제는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 가는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며,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써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와 더불어 리튬전지이다. 특히 디지털시대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의 3대 Key Device로 반도체, LCD, 전지를 꼽고,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자제품의 경, 박, 단, 소와 Cordless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것이 리튬전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리튬전지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일본업체들이 석권하고 있다.

에니셀은 이같이 침체된 국내 전지산업의 명예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1999년 성림에너지라는 리튬전지 전문기업으로써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전지산업에 참여했다.

광소자 구동용 초소형 박막전지 개발

에니셀은 설립과 함께 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리튬전지를 연구개발한 연구진을 바탕으로 차세대 핵심 에너지 사



▲ 임영우 사장은 평동공장 건설을 계기로 세계3대 리튬전지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분야인 리튬전지 및 광전지 프로젝트에서 과감한 투자와 R&D로 기초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 10여건의 특허를 취득하거나 출원 중에 있으며 이미 자동카메라 및 정보통신용 리튬전지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본격적인 시장출하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스위스, 브라질에 처녀수출을 했다.

이 회사는 국내는 차치하더라도 세계에서 세번째인 자체기술에 의한 리튬전지의 양산에 성공하게 된 데에는 임영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전지산업에 대한 열정과 기초 및 기반기술에 대한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00 벤처기업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우량기술기업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2001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모범 경영사례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산업은행, 무한기술투자, 한강구조조정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가와 미국 Korea Fund 및 영국 SCI 등을 비롯한 외국 투자기들로부터 총 11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KG와 리튬전지 산업에 관한 국내 독점공급계약 및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고도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국제경영환경에 대처하고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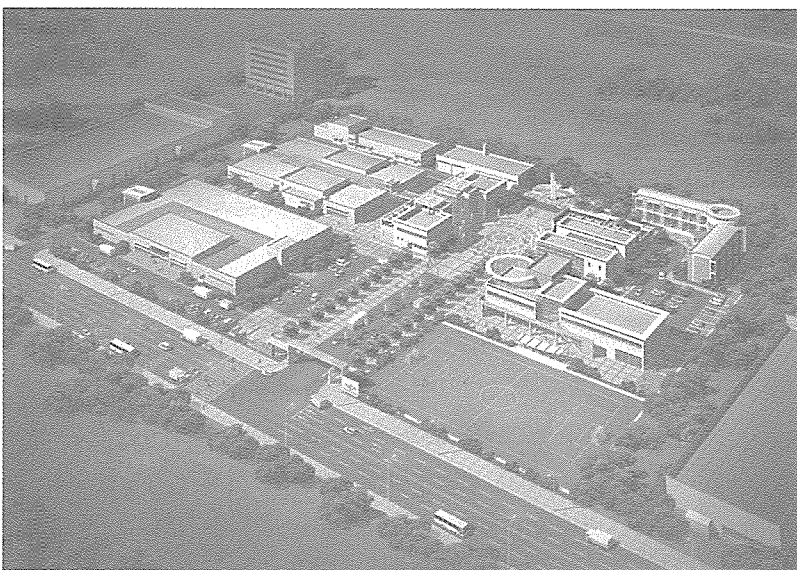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를 성림에너지에서 애니셀로 변경한 후에는 3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전지소재 생산기업인 독일의 Merck사와 러시아 최대의 전지 전문회사인 Lithium Element사 등 세계 유수의 전지관련 다국적기업과 기술 및 마케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1만2천평의 평동공장 건설

애니셀은 지난 2년간 약 150억원을 투자해 자동카메라 및 정보통신용 리튬전지 광소자 구동용 초소형 박막전지의 양산체제를 구축한 하남사업장을 기반으로 2010년 내에 명실상부한 '세계 리튬전지 3대 메이커'로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전임직원이 집념과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평동 외국인용단지에 12,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2003년까지 평동사업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평동사업장을 전지관련 기술 및 시설 등의 집적화를 통해 전지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그간 경쟁력을 상실하고 붕괴 위기에 있던 한국 전지산업의 세계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인 애니셀은 오직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수많은 벤처기업들에게 귀감이 됨은 물론,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벤처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우뚝 설 것이다.

〈취재 / 윤희진 기자〉



▲ 세계 리튬전지 3대 메이커로 성장하게 될 평동사업장 조감도.